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

프 로 그 램 진 행 개 요

프 로 그 램 명	생존의 왕 '로제트'		
활 동 목 표	- 로제트 식물의 자연에서 생존 방법과 자연에 순응하는 능력을 알아보면서 식물의 생태이야기를 한다. - 투명셀로판지와 네임펜을 이용하여 로제트 스테인글라스 만들기 체험을 한다.		
해 설 주 제	로제트식물		
해 설 재 료	투명셀로판지, 네임펜	소 요 시 간	10'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 주제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시 작	인사 및 안내	- 인사 - 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1'	
	국립공원 소개	- 국립공원이란? - 무등산생태탐방원 소개	1'	
주 제 별 해 설	로제트 식물	- 로제트 식물이란?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제트 - 로제트 식물의 자연 순응 시스템 · 왜 가을부터 봄을 맞이 하는가? · 추운 날씨 속에도 죽지 않고 사는 이유 · 로제트 식물의 자연 순응 시스템	5'	
	체험 프로그램	- 로제트 스테인 글라스 만들기 · 만들기 방법 설명 · 로제트 스테인 글라스 만들기 실습	2'	- 투명 셀로판지, 네임펜
정 리	마무리	- 소감나무기 및 마무리	1'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생존의 왕 '로제트'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 사 및 국립공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무등산생태탐방원의 자연환경해설사 OOO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수생태원에 숨어 있는 식물계의 생존왕을 찾아볼 건데요. 잘 찾아볼 준비 됐나요? 그 전에 이곳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와본 친구 있나요?(호응유도) 그렇다면 무등산에 가본 친구들도 있나요~?(호응유도) 많은 친구들이 무등산을 와봤다고 하는데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 21번째로 지정되어 우수한 자연생태를 보전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랍니다. 또한 무등산생태탐방원은 무등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세대나 모든 국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집중에서 잘 들어 줄 수 있죠?
주 제 별 해 설 (로제트)	자!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대부분 친구들이 꽃이나 나무들을 많이 이야기 하네요. 오늘 우리가 찾을 식물계의 생존 왕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그 식물은 바로!!!! '로제트'식물입니다~! 로제트라고 하면 생소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로제트라는 뜻은 'Rosette' 중 R O S E 익숙한 단어죠? 땅위에 펼쳐진 식물의 모습이 장미꽃을 펼쳐 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로제트 식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바닥에 깔린 모양이 방석처럼 보인다고 하여 방석식물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런 로제트식물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가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우리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로제트 식물로는 후~후~ 씨를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봄나물하면 생각나는 '냉이', 뽀빠이도 즐겨 먹은'시금치', 약으로도 만들어지는'달맞이꽃', '질경이' 등 우리 주변에서 로제트식물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땅을 둘러보고 로제트식물을 찾아볼까요?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로제트 식물을 찾았나요? (대답유도)

	로제트식물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호응유도) 네 맞아요. 바닥에 바짝 붙어서 자라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닥에 바짝 붙어서 자랄까요? 바로 생존의 왕답게 생존에 필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 비밀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냉이와 달맞이꽃, 시금치 같은 로제트식물은 가을에 잎을 내어 겨울을 보내는 로제트인데요. 이렇게 여린 잎을 가진 식물들이 겨울의 추위와 바람을 견뎌야 하는데 그 생존 방법이 바닥에 바짝 붙어서 자라는 것이에요. 이 생존 방법의 가장 큰 효과로는 첫째,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바람을 피할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바람에 증발되는 잎의 수분도 지킬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잎을 바닥에 바짝 붙이고 최대한 넓게 펼치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위해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저장한답니다. 세 번째, 잎을 넓게 바닥에 바짝 붙이기 때문에 땅의 지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잎과 뿌리가 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물들에게 밟혀 죽거나 초식동물들에게 먹힐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어요. 이런 생존방법을 가지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로제트식물들은 봄이 아닌 가을부터 잎을 내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할까요?(궁금증유발) 그냥 쉽게 봄에 잎을 내면 춥고 혹독한 겨울을 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또한 생존의 왕답게 생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생존 방식의 중 하나에요. 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는 로제트 식물이 봄에 다른 식물들과 같이 싹이 트이고 꽃을 피운다면 큰 나무나, 잎이 넓고 큰 식물에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먼저 싹을 트고 꽃을 피워 가장 빨리 활동하는 곤충을 유혹하여 자신의 자손을 퍼트리기 위해 가을에 잎을 내어 추울 겨울을 이겨낸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작은 식물들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생존방법을 쓰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주 제 별 해 설 (체험)	자 그럼 우리 오늘 들어본 생존 왕 ‘로제트’식물을 가지고 스테인글라스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면 뭐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나 성당에서 알록달록한 유리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투명 셀로판지

	를 활용하여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고 가져가서 햇빛이 잘 드는 창에 붙여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음에 드는 네임펜을 하나씩 들고 주변에 로제트식물을 찾아 그 위에 댄 다음 로제트식물 잎의 끝을 따라 그려줍니다. 이렇게 큰 것을 하도 좋고 작은 것을 여러개 해도 좋습니다. 로제트식물의 잎을 따라 선을 그었다면 이제 그 안을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하여 색칠해주면 끝이 나는데요. 우리 본인 작품을 까먹지 않게 이름이나 아니면 쓰고 싶은 글귀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억하기 위해서 날짜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했다면 오늘 만든 스테인 글라스 셀로판지를 가지고 햇빛이 잘 드는 교실 창에 붙여서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 저와 함께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유익한 시간이었나요~?(호응유도) 우리는 자연을 생각하면 파란하늘과 화려한 꽃, 커다란 나무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발아래를 유심히 살펴보면 자신만의 생존방법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내는 작은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앞으로 힘든 시련이나 고통을 경험하더라고 좌절하지 않고 이겨낸다면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렇게 따사로운 봄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저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고 다음에 찾아오면 더 재밌고 유익한 해설로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권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